

“평생 깎은 조각, 이제 나누려 합니다”



‘청해진의 꿈’(왼쪽)과 표지석 ‘함께해요-더 나은 미래’

전국적 인정 작품 상당수...100억원 넘어
작년 편도암 선고 받고 결심...제자들 동참

2500평 규모 공원에 조각 작품 전시

12일 남부대 설립 66주년 기념일 공식개장



남부대학교 우암동산에 설치된 정운태 조각가의 ‘포즈A’.

〈박철 사진작가 제공〉

작품 23점 기증 남부대에 조각공원 개장하는 정운태 前조선대 미술대학장



‘풍요로운 나날 89’

“한평생 ‘쉬지 않은 손, 머물지 않는 정신’을 신념으로 삼고 작품활동을 해 왔습니다. 이제 그 생각을 남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학생, 시민들이 제 조각을 보고 사색과 여유를 느끼시길 바랍니다.”

미술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결과물을 기증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제작 비용과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하는 조각이라면 더욱 그렇다.

최근 정운태(70·전 조선대 미술대학장) 작가는 일생 동안 제작했던 작품들을 남부대학교에 기증했다. 미술학도였던 1975년부터 2010년까지 제작한 작품들이다. 소식을 들은 제자 박준하, 이승욱, 위재환, 이은재 작가도 기꺼이 동참하며 모두 28점을 기증했다.

남부대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캠퍼스 내 우암동산에 기증작을 설치해 ‘남부대학교 정운태 조각공원’을 조성했다. 창학 66주년 기념일인 오는 12일 정식 개장식을 열 예정이다.

정씨는 “내 신념과 남부대 설립 철학 ‘손가락으로 바위를 뚫어라’가 가진 의미가 일치한다고 생각한다”며 “‘세계로, 미래로 뻗어간다’는 작품 주제를 통해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해 기증했다”고 말했다. 지난 2007년 조성된 우암동산은 멋진 조경을 자랑하며 조각을 배치하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8일 찾은 조각공원은 개장식을 앞두고 곳곳에서 풀을 베고 나무잎을 정리하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전체 8186㎡(약 2500평) 규모 공원은 한가롭고 여유로운 분위기가 인상적이다. 강의실을 이동하는 학생들은 돌아가더라도 일부러 조각공원을 이용하는 모습이 었다. 조각 중간중간에 놓인 벤치에 삼삼오오 모여 앉아 수다를 떨거나 책을 읽었다.

조각과 나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어우러졌다. 지난 4월부터 전국 조각공원을 견학한 후 작품 선정부터 배치까지 세세하게 신경 쓴 정씨 노력의 결과였다.

우암동산 표지석 옆에는 석조작품 ‘함께해요-더 나은 미래’를 설치했다. 작품 반점석에 새겨진 ‘쉬지 않는



손, 머물지 않는 정신!” 이 넘은 지역 서예가 남초 전진현 선생이 재능기부했다.

본인 이름을 딴 공원이 조성된 만큼 정씨는 전국에서 인정 받은 작품들을 상당수 내어놓았다. 금액으로 따지면 100억원을 넘는 가치다.

1982년작 ‘하늘’은 한국 미술대전 입상, ‘남풍82’

(1982)은 문공부장관상, ‘소망’(1983)은 전남미술대전 최우수상, ‘풍요’(1980)는 한국미협전 최고상을 수상했다. 또 ‘평화로운 하늘’(1976), ‘모자상86’(1986), ‘소망’(1975) 등도 전국대회 수상작이다. 모두 1.5m 이상 크기로, 작가명, 제목 외에 꼼꼼하게 설명을 붙여놓았다.

정씨 작품에는 ‘하늘·땅·인간의 조화’가 담겨 있다. 여성을 모델로 한 작품 대부분은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 땅에서 하늘로 관람객 시선을 상승시키며 ‘소망’을 표현한다. 또 ‘휴머니즘’도 느껴진다. ‘풍요로운 나날 89’ 속 여성 3명은 함께 머리에 짐을 짊어지며 협동, 화합을 전해준다. 모두 여성을 등장시킨 이유는 성차별 등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숨어있다.

정씨가 기증을 결심하게 된 배경에는 개인적인 이유도 있었다. 지난해 편도암 4기를 선고 받으며 사경을 헤맸다. 가까스로 회복한 그는 ‘의미있는 일을 해보자’고 생각했다. 동명동 작업실에 놓여있는 작품들이 세상으로 나오게 된 사연이다.

지금도 손에서 작업도구를 놓지 않는 정씨는 앞으로 7점을 더 제작·기증해 총 30점을 전시할 계획이다. ‘손으로 바위를 뚫어라’에서 모티브를 얻은 작품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정씨는 “현재 조각을 하는 후배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공원 개장을 계기로 후배들이 힘을 얻고 시민들도 다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행복한 오페라 & 신나는 클래식’

12일 광주문예회관 ‘천원의 낭만’ 공연

광주시와 (사)아시아공연예술위원회가 주최하는 제77회 ‘행복한 문화충전 천원의 낭만’이 오는 12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행복한 오페라 & 신나는 클래식’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의 초대 손님은 ‘더 싱어즈’와 아시아아트심포니오케스트라다.

2009년 창단된 ‘더 싱어즈’는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등에서 공부를 마친 성악가들로 구성된 지역 여성 솔리스트들의 모임이다. 단장 이한나(조

선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 음악감독 유형민을 중심으로 17인조 솔리스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복희, 박지현, 반수진씨가 반주를 맡고 있다.

라현수씨가 지휘봉을 잡는 이번 공연에서는 오페라 ‘카르멘’ 중 ‘하바네라’, 오페라 ‘라 웰리’ 중 ‘그렇다면 멀리 떠나겠어요’, 오페라 ‘마술피리’ 중 ‘밤의여왕 아리아’, 뮤지컬 ‘맘마미아’ 중 ‘댄싱 퀸’ 등을 선보이며 해설도 곁들여진다. 문의 062-226-203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노여운 작가 개인전 29일까지 갤러리 리체



‘꽃은 피어난 것 만으로 충분하다’

광주 내 아파트 재개발 대상 지역 골목길을 그려온 노여운 작가가 갤러리 리체에서 29일까지 개인전 ‘꽃은 피어난 것 만으로 충분하다’를 연다. 이번 개인전은 갤러리 리체가 올해 진행하는 청년작가 지원 공모사업 일환이다.

그동안 인상주의 화풍으로 우리 일상을 표현했던 노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신작 ‘시든 꽃’시리즈를 선보인다. 약 1년 반 전부터 화훼시장에서 다양한 관상용 꽃들을 사서 건조시키며 구상해 온 정물 작업이다.

작품 ‘꽃은 피어난 것 만으로 충분하

다’에서 시들여가는 꽃봉오리는 의지와 상관없이 주변 평판에 휩쓸리는 우리네 모습이다. 각 작품마다 장미, 국화, 리시안서스 등 다양한 꽃을 볼 수 있다.

노 작가는 작품을 통해 시든 꽃도 우리 일상에서 아름다운 순간으로 기록될 수 있다고 전한다.

노씨는 전남대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광주, 서울에서 개인전 ‘남겨지다’, ‘홀려가다’, ‘쉽, 쉬어가다’를 개최했다. 제16회 광주신세계미술제 신진작가상, 제25회 무등미술대전 대상을 수상했다. 문의 062-412-0005. /김용희기자 kimyh@

문화예술공동체 ‘울림’ ‘아프리카야 놀자’ 참가자 모집

아프리카 리듬과 춤을 감상하고 배우는 프로그램 ‘아프리카야 노을~자!’ 참가자를 모집한다.

문화예술공동체 ‘울림’이 광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 마련한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청

소년과 부모가 참여할 수 있다.

수강료와 재료비가 전부 무료이며 24일부터 10월 15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마감은 20일이며 수강료는 무료다. 문의 070-4306-578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명물 박물관 탄생!!
세계 70여개국에서 수집한 조각·장식 6,000여점 전시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World Sculpture·Ornament Museum

☎(062) 222-0072, 226-5800 일요일 휴관
(구. 카톨릭센터 뒤 금명맨션 1층)

아프리카 소나조각
앙코르 전시회

• 400여점 전시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맨 파워

나이 들어도 자신있는 남자 Project

삶의 활력을 찾자!
남성의 자신있는 삶!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기력이 없는 갱년기 남성 건강에 활력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MR-10과 소팔메토, 아연의 복합기능성 제품으로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